

제 목 2019 유영호전 『요기 over there』 보도자료
담당 박춘호 학예실장 ho8055@daum.net 02-3217-6484 010-8796-8055
자료 웹하드 ID: **kcymuseum** PW: **6484**
GUEST > 내리기전용 > 보도자료 >오늘의 작가 유영호 전



- 전시명 2019 오늘의 작가 유영호전 『요기 over there』
- 기간 2019.9.6 금- 11.3 일
- 장소 김중영미술관 신관 1,2,3 전시실 (서울 종로구 평창 32 길 30)

■ 전시개요

“유영호, 제 3의 길을 가고 있는 아티스트”

□ 김중영미술관은 일생을 미술교육에 헌신한 김중영 선생의 뜻을 기리고자 2004년부터 그동안의 작업을 통해 장래가 촉망되는 작가를 선정해서 매년 『오늘의 작가』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 올해는 유영호(55) 작가를 선정했습니다. 유영호는 『그리팅맨 Greeting man』, 즉 인사하는 사람을 세계 여러 곳에 설치하는 작가로 널리 알려졌으며, 상암동 D.M.C. (Digital Media City) MBC 사옥 앞 광장에 세운 일명 'Mirror man'이라고 불리는 작품 『월드 미러』가 영화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나와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 유영호의 이번 전시 제목은 『요기』입니다. 요기는 정확히 가까운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번 전시 『요기』에는 1층 전시실에 『평화의 길』, 2층 전시실에는 1/200로 축소한 『인간의 다리』, 그리고 3층 전시실에는 『연천 옥녀봉 - 장풍 고잔상리 그리팅맨』 해서 총 3 점을 전시합니다.

□ 이번 전시 출품작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리팅맨』을 바탕으로 남북 화해를 통해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그의 바람을 담아낸 작품들입니다.

■ 전시 서문 (발췌)

□ 유영호는 『그리팅맨』 프로젝트를 통해 종교와 인종 그리고 심지어는 무력으로 인한 전쟁을 겪고 있는 동시대인들과 함께 만남, 공존, 화해와 평화안녕을 기원하고자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사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그리팅맨』은 특정인을 모델로 하지 않은 단순화한 남자 누드 상이다. 15도로 고개 숙인 『그리팅맨』은 보는 사람에게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겸손하면서도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다.

□ 유영호는 『그리팅맨』을 지금까지 국내외 10여 군데에 세웠다. 가장 최근에는 그곳 시간으로 지난 8월 4일 한국과 브라질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한국문화원이 파울리스타 Paulista로 옮겨 새롭게 개원하면서 문화원 앞마당에 설치했다. 그런데 유영호는 작품제작부터 운반과 설치까지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그러니까 그는 온전히 자신의 작품을 기증하는 것이다. 그가 모든 비용을 감당함에도 작품설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린다. 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관청에 제안해서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영호는 국내 작가 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방식의 공공조형물 설치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작가라 할 수 있다.

□ 유영호의 이번 전시 제목은 『요기』이다. 요기는 정확히 가까운 특정 장소를 가리킨다. 본 전시 『요기』에는 1층 전시실에 『평화의 길』, 2층 전시실에는 1/200로 축소한 『인간의 다리』, 그리고 3층 전시실에는 『연천 옥녀봉 - 장풍 고잔상리 그리팅맨』 해서 총 3 점을 전시한다. 『평화의 길』은 두 사람이 마주 보고 두 팔을 벌려 손을 잡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다. 전시작품은 모형인데, 모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작품에서는 관객들이 마주 잡은 팔 위로 걸어 다니며 주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작품은 축소모형이라 하지만 전시장 공간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하다. 관객은 두 사람을 올려 보며 실제 설치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볼 것이다. 『인간의 다리』도 마찬가지다. 강 가운데에 고개 숙여 인사하는 사람이 두 팔을 벌려 다리가 되었다. 1/200로 축소한 모형이므로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된다. 이 두 작품은 아직 어디에 설치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 『요기』는 바로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옥녀봉과 휴전선을 경계로 마주 보고 있는 북한 황해남도 장풍군 고잔상리 마량산이다. 유영호는 2016년 4월 23일 옥녀봉에 5번째 『그리팅맨』을 설치했다. 당시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남북은 곧 전쟁이라도 할듯했다. 미술가로 이런 시국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는 남쪽 옥녀봉과 북쪽 마량산에 휴전선을 경계로 마주 보고 인사하는 그리팅맨을 세우는 안을 생각했다. 그는 먼저 연천군에 제안했고, 2년 만에 그 가운데 하나를 먼저 옥녀봉에 설치했다. 그러나 마량산은 북녘땅이라 설치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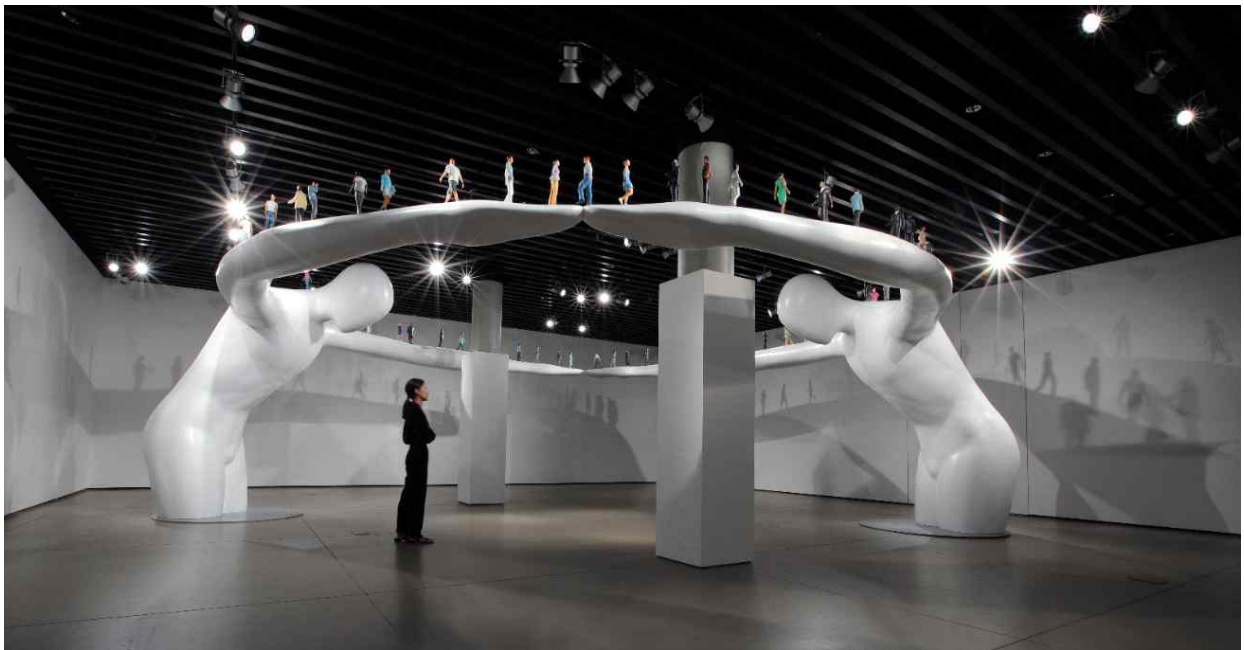
마량산은 6·25 동란 중에는 317고지로 불렸으며 1951년 10월 3일부터 8일까지 중공군과 호주군 사이에 치열한 고지전이 펼쳐진 곳이다. 그는 ‘요기’에 나머지 『그리팅맨』을 세워 이 기획안을 마무리하고자 지금도 연천군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듯하여 언제 이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꿈을 가지고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다.

□ 이번 전시 출품작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리팅맨』을 바탕으로 남북 화해를 통해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그의 바람을 담아낸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찌 보면 이는 그의 능력 밖이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일에 긍정적이며 낙천적이다. 그는 실현되리라 확신하며 어떻게 제작 비용을 마련할지 고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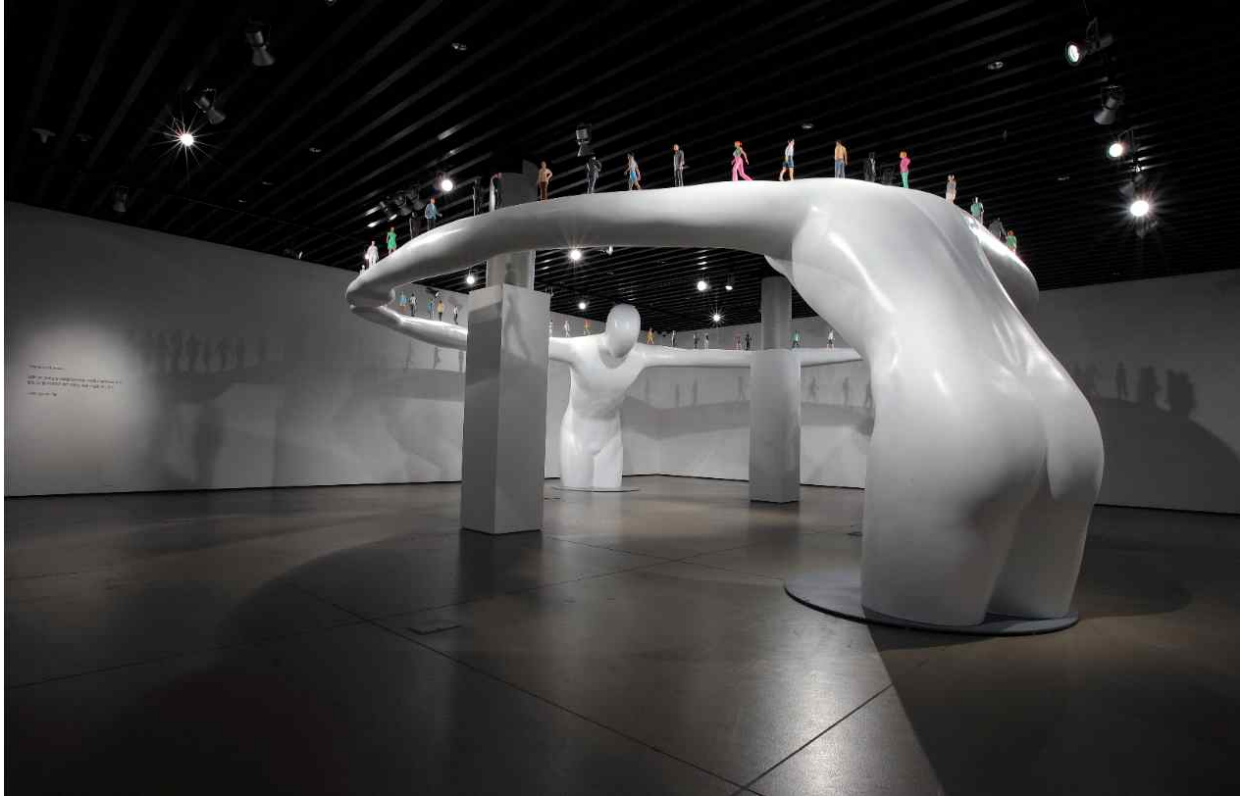
□ 광화문 광장에 차고 넘치는 격한 구호를 보며, 우리 사회만큼 공존이 필요한 곳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다. 필자는 출근길에 경복궁 건너편 모퉁이에 있는 『그리팅맨』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다. 유영호의 작업을 살펴보며 “예술의 궁극적인 과제와 존재 이유는 작가가 그 시대와 사회의 실존문제를 여하히 형상화해 내는가에 달렸다.”는 말이 절절하게 와닿는다.

□ 유영호는 작가로서 시대와 사회의 실존문제를 매우 깊이 있게 살피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작업을 풀어나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작품을 화이트 큐브에 진열해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구조를 거부한다. 그는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협의를 거쳐 작품을 제작하고 기증해서 그의 작품은 지역사회가 소유하며 의미를 공유한다. 이같이 작업하며 그는 주류 시스템에 편입되지 않고도 작품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어 한다. 그는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길을 찾아 나섰다. 그것을 제3의 길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가 제3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용기는 바로 긍정의 힘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공공성이야말로 동굴에서 처음으로 그림을 그린 선조들이 추구하던 바가 아닐까 싶다.

■ 전시전경 및 작품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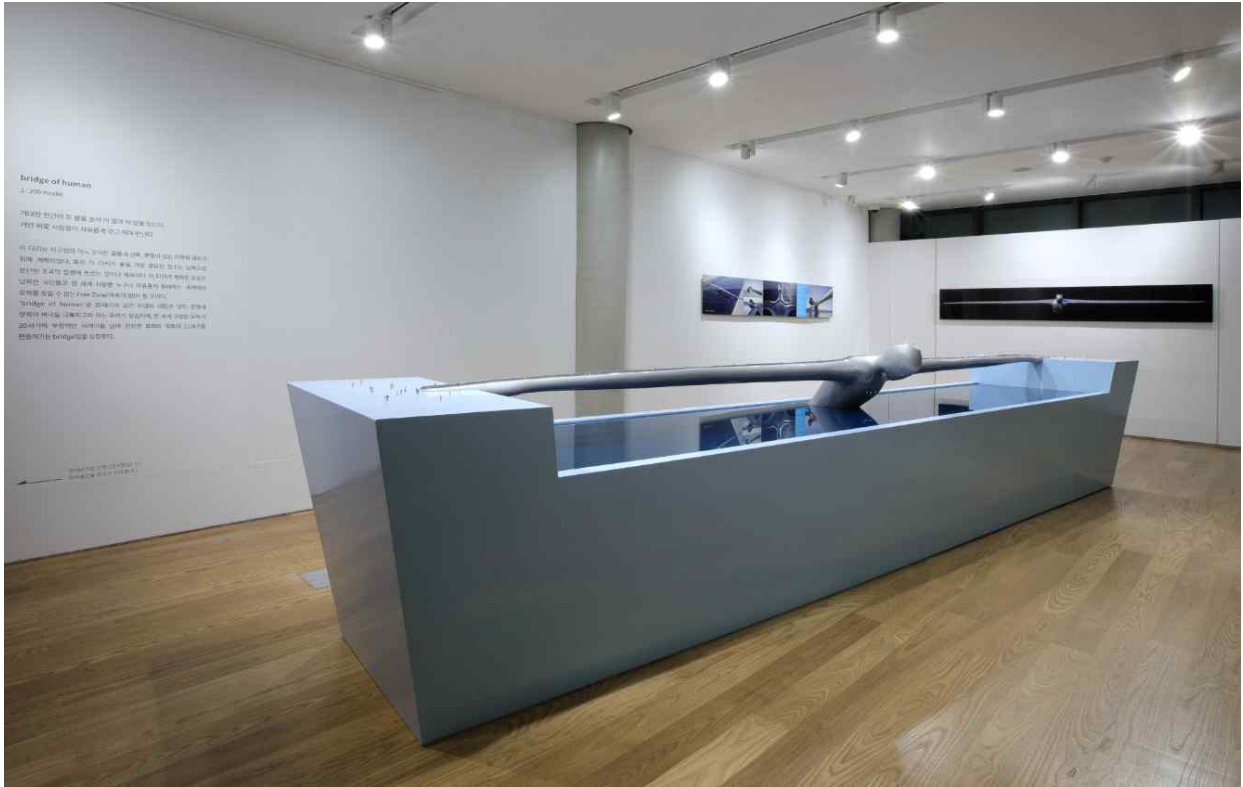
유영호, <평화의 길>, 12 x 10 x 3.3(m), 알루미늄 주물, 레진, 우레탄 칼라, 2019 (김중영미술관 1 전시실 전시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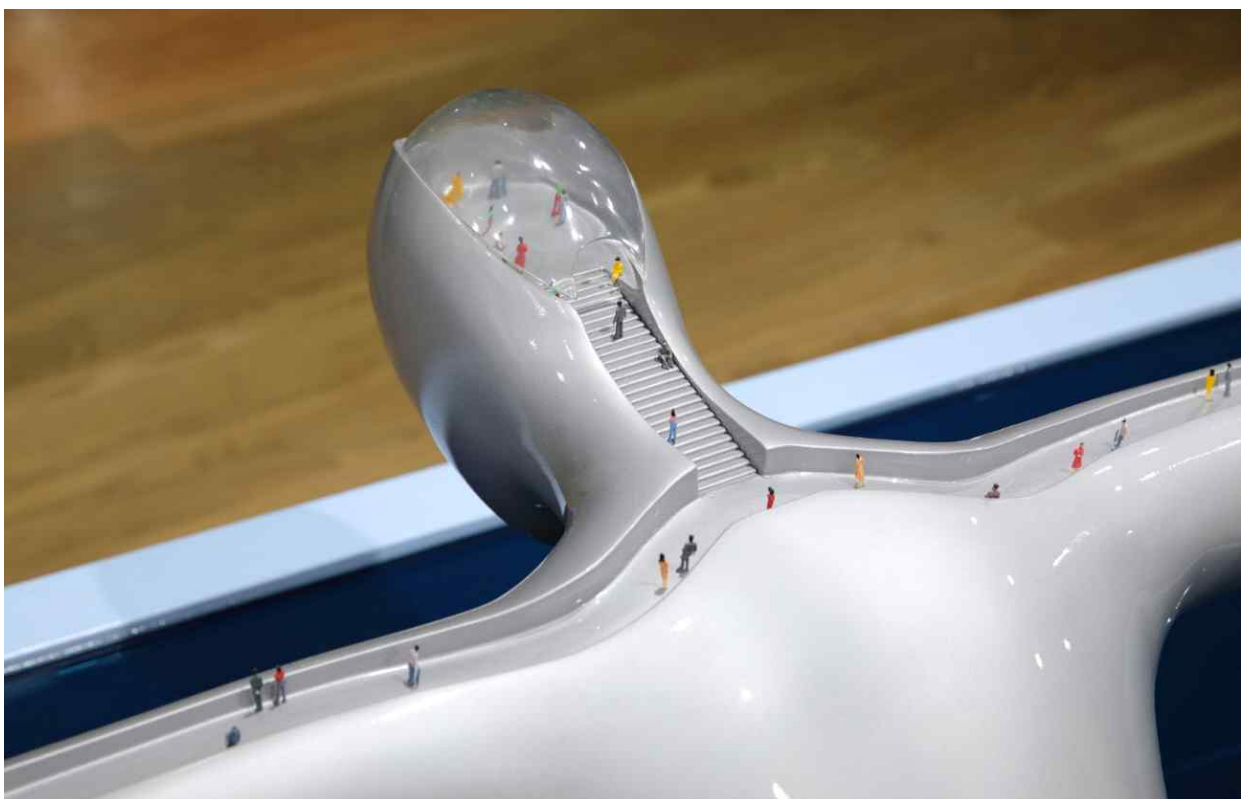
유영호, <평화의 길>, 12 x 10 x 3.3(m), 알루미늄 주물, 레진, 우레탄 칼라, 2019



유영호, <평화의 길>, 12 x 10 x 3.3(m), 알루미늄 주물, 레진, 우레탄 칼라, 2019 (부분)



유영호, <인간의 다리>, 6.5x1x1(m), 알루미늄 주물,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 칼라, 2019



유영호, <인간의 다리>, 6.5x1x1(m), 알루미늄 주물, 스테인레스 스틸, 우레탄 칼라, 2019 (부분)



유영호, <연천 옥녀봉-장풍 고잔상리 그리팅맨>, 8 x 3 x 0.8 (m), 폼보드, 알루미늄 주물, 철, 2019



유영호, <연천 옥녀봉-장풍 고잔상리 그리팅맨>, 8 x 3 x 0.8 (m), 폼보드, 알루미늄 주물, 철, 2019

■ 작가 유영호 (1965 년~)



■ 학력

- 1999-2003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 아카데미 브리프(학위취득)
- 1999-2002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 마이스터 실러 -링케 클래스,
- 1984-199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 2007 프로젝트 스페이스 '더 버스' 운영
- 2001 얼터너티브 스페이스 호오크쯔바이 오픈. 전시 조직 및 새로운 미술의 가능성 연구

■ 개인전 & 프로젝트

- 2018 "Symmetry", 멀버리 힐즈 갤러리, 서울, 한국
- 2018 "Greetingman", Guayaquil, Ecuador
- 2017 "World Mirror", Tababela Redonde in Quito, Ecuador
- 2017 "Greetingman", Equator Line in Cayambe, Ecuador
- 2017 "유영호 조각전 self-reflection", 연강갤러리, 연천
- 2016 "Greetinman project in Yeon-cheon", 경기도 연천 옥녀봉
- 2016 "Greetingman project In Panama City, Panama
- 2015 "Greetingman project In Jeju, Da Vinch Museum", 제주, 한국
- 2013 "Greetingman project In Yanggu DMZ", 양구, 한국
- 2013 "반성", 갤러리 로얄, 서울, 한국
- 2012 "Greetingman In Uruguay Montevideo, 부세오 대한민국 광장, 몬테비데오
- 2011 "Greetingman project", 갤러리 스키이프, 서울, 한국

- 2009 "프라이스 습- 서울" 오픈, 삼청동, 서울, 한국
- 2007 "프라이스 습-서울", 더 버스, 서울
"Museum" The Exchaging Shop-프로젝트, 아르코 미술관,
- 2003 "아카데미-쿤스트" 쿤스트 아카데미 뒤셀도르프, 뒤셀도르프, 독일
프라이스습 - 서울, 사루비아 다방, 서울
프라이스습 - 교토, 바이스라움, 교토, 일본
- 1996 유 영호 조각전, 토 아트 스페이스, 서울

■ 전시조직 및 프로젝트

- 2009-10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상징 조형물 공모 당선
- 2008 "헤이리 스페이스 상상" 건축 디자인, 스마일플래닛 1층 입주예정, 헤이리, 한국
북경 WCO(World Culture Open) 사무실 디자인 프로젝트, 북경, 중국
- 2007 "SO.S", 사루비아 다방과 공동기획, 더 버스, 서울, 한국

■ 2 인전

- 2001 "쓰시 퍼포먼스", 뒤셀도르프, 독일
"삼일 동안", 퍼포먼스 프로젝트,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 뒤셀도르프, 독일
- 2000 "누가 여기 살고 있습니까?", 뒤셀도르프, 독일

■ 3 인전

- 2009 "passage 2009", Japan-Korea, 갤러리 쿤스트 독, 서울, 한국
- 2007 "the bus", 갤러리 상 157, 서울, 한국
- 2007 "smile planet by yoon jeong won", 갤러리 상 157, 서울, 한국
- 2001 "김치 퍼포먼스", Henk Visch 와 함께,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 뒤셀도르프, 독일
- 1999 "공간 3",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 뒤셀도르프, 독일

■ 그룹전

- 2018 "포스트 88-서울올림픽 조각프로젝트, 소마미술관, 서울
- 2016 "더 라인 2"전, 파주 DMZ 철책, 파주, 한국
- 2015 "더 라인"전, 파주 DMZ 철책, 파주, 한국
- 2014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포항 시민공원, 포항, 한국
- 2014 "태화강 국제조각전", 울산, 한국
- 2014 "건축 면의 경계", 소마 미술관, 서울, 한국
- 2013 "환대", 문화역 248, 구 서울역서, 서울, 한국
- 2013 "구,체,경",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 2012 "부암동 프로젝트" 환기 미술관, 서울, 한국
- 2011 "이상과의 대화", 통인동 이상의 집, 서울, 한국
- 2010 "이코노텍스트 : 미술과 언어 사이", 제주 도립미술관, 한국
"유원지에서 생긴 일", 경기도 미술관 안산, 한국
- 2009 "신호탄", 구 기무사 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향수 자연 속에 피어나다", 양구 용머리 조각 공원, 양구, 한국

- “양구의 겨울”, 박수근 미술관, 양구, 한국
 “현대 미술로 해석된 리얼리즘”, 경남도립 미술관, 창원, 한국
 2008 “특별전”, 박수근 미술관, 양구
 울산대학교 미술대학 개교 10 주년 기념전, 갤러리 H, 울산, 한국
 2007 “Con-Terminal”, 국립 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재활용 주식회사”, 아르코 미술관, 서울, 한국
 “젊음! 박수근을 잇다”, 박수근 미술관, 양구, 한국
 “현대미술의 오늘과 내일”, 세종문화회관 전시실, 서울
 2006 양구 조각 프로젝트 “꿈”, 양구, 한국
 여수 무슬목 조각 프로젝트, 여수, 한국
 김세중 조각상 20 주년 기념전, 성곡 미술관, 서울, 한국
 “박수근 고향작가를 만나다”, 박수근 미술관, 양구, 한국
 “Beginning”, 중국미술학원-울산대학교 교수 교류전, 갤러리 H, 울산, 한국
 2005 “창동고”, 국립창동 미술 스튜디오, 서울, 한국
 “DMZ- KOREA 2005”, 헤이리 북하우스, 파주, 한국
 “쌍쌍 전”, 마로니에 미술회관, 서울, 한국
 “아테네 학당-very successful”, 국민대학교 미술관
 “Mapping on the Root”, K-Art Space, 성남, 서울

 2004 “베이스캠프-부산” – 독일작가 베른하르트 킨츨러 공동작업, 부산 비엔날레
 현대미술전 -접점, 부산 시립 미술관, 한국
 “리얼링”, 사비나 미술관, 서울, 한국
 2003 “물 전” 서울 시립 미술관, 서울
 C-O-O-P #2, 아오야마 미술관, 도쿄, 일본
 2002 C-O-O-P #1, Le Garage, Nancy, 프랑스
 “Statt Kunst Stadtkunst”, 호오크쯔바이, 뒤셀도르프, 독일
 “ . . . /1000”, 호오크쯔바이, 뒤셀도르프, 독일
 “wasser”, 호오크쯔바이, 뒤셀도르프, 독일
 “normal”, 호오크쯔바이, 뒤셀도르프, 독일
 2001 “6 인전” 국립 현대 미술센터, 푸글레조, 프랑스
 “호텔 우퍼”, 호텔 우퍼, 뒤셀도르프, 독일
 “미술과 치유”전, 쿤스트 하우스 메란, 메란, 이태리
 “아트 애디션”, 호오크쯔바이, 뒤셀도르프, 독일
 “ein, aus, fahrt, blick - 비디오, 사진, 인스탈레이션”
 -전시조직, 컨셉, 공간구성과 설치,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 뒤셀도르프, 독일
 2001 “Hotspot”, 전시조직, 컨셉, 공간구성과 설치,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
 뒤셀도르프, 독일
 2000 신체, 얼굴, 이콘, 아시안 파인아트 베를린, 베를린, 독일
 1998 “호랑이의 해” 한국 현대미술 유럽 순회전, 세계 문화의 집, 베를린, 독일
 “호랑이의 해” 한국 현대미술 유럽 순회전, 루드비히 포룸, 아헨, 독일
 1997 어느조각 모임전, 관훈 갤러리, 서울
 일러스트전, 서남 아트센터, 서울



-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일상, 기억, 역사", 광주 시립미술관
한국 현대미술 신세대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96 젊은 모색전, 국립 현대미술관, 과천
1995 D.M.Z.전, 갤러리 청남, 서울

■ 수상

- 2004-5 국립창동 미술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2004 김세중 청년 조각상